자랑거린 놔두고 부러워서 지는 바보

(역대상 16:1~43)

7.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1.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자랑거린 놔두고 부러워서 지는 바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자랑거린 놔두고 부러워서 지는 바보'
"부러우면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절실하게 부러워해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절실하지는 않더라도 무엇인가를 은근하게 부러워하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러움이 때때로 시기심이나 비방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부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에 바로 옆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로또 당첨자가 연거푸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는데 잊을만하면 또 당첨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 목사로서 괜히 교인들에게 미안해지고 목사가 영력이 부족해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로또 당첨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로또가 사행성이기 때문에 굳이 신학적 신앙적 기준으로 말하자면 할 말이 많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목사의 기도발이 약한 것 아닌가 하는 괜한 자책감 같은 것이 생겼는데 부러움이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생기는 자책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부러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17년 동안 아내가 임신이 되질 않았습니다. 말이 17년이지 7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면서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우는 사람보다도, 임신했다가 유산하는 사람까지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바라지도 않으니 임신을 했다가 유산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16: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승리의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하신 말씀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중요한 가치는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고, 공생애 33년 동안에도 그 이기심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알렉산더나 칭기즈칸을 부러워해본 적이 없고, 이 시대의 빌게이츠나 중국의 마윈 같은 재벌들 그 누구도 부러워해 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나 칭기즈칸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므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 속에는 이런 말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과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특징은 세상 가치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칭기즈칸의 권력이나 영토, 빌게이츠나 마윈의 돈과 명성, 간디의 평화적 지도력,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등이 전혀 부럽지 않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입니다.

‘믿음’은 내 심장을 꺼내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꺼내서 예수님 안에 담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대하는 방식대로 내 마음도 세상을 대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세상 가치를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세상이 부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 가치를 많이 가진 자들을 부러워한다면 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3:17절에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때 드라마 속에서 유행했던 말을 빌어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꼬락서니를 보시고 ‘돈 많이 벌었다고 떵떵거리고 있느냐? 이 못난 바보들아!’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마음을 두는 것이 믿음이기에 예수님이 세상을 대하신대로 세상을 대한다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

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치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뜻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안절부절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의 '자랑거린 놔두고 부러워서 지는 바보'라고 하는 말처럼 자랑거리와 부러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자랑거리와 부러움은 같은 근원에서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과 부러워하는 것은 마음의 모습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성소와 성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까지 역대기의 흐름을 보면 마음의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의 돌판을 담았던 법궤의 상태로 유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은 인격성을 뜻하기 때문에 마음의 지성소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지성소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을 정도로 거룩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곳에 이 세상에서 침을 흘리는 가치들인 돈 권력 건강 승진 명예 엘리트 일류 등의 이름을 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지성소는 거룩함에 비례해서 더욱 더러워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이름이 담기면 마음의 성소에 해당되는 마음 부분에서 발생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기도를 뜻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지성소에 담은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손에 쥐기 위해서 기도로 추구합니다. 또한 배부름을 뜻하는 떡 상이 있는데 지성소에 담은 이름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등대는 지성소에 담은 이름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됨을 뜻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의 심리학입니다.
'절대 진리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참 심리학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 성소의 모양이 말하는 이상의 심리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심리학적 가설들은 망상이고 추측이고 지어내는 얘기일 뿐입니다.
마음의 법궤 안에 들어오는 이름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자랑과 부러움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닌 돈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물의 돈을 분향단이 뜻하는 대로 추구하게 됩니다. 등대가 상징하는 대로 돈과 관련되어 이익이 되면 옳은 것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떡 상이 상징하는 대로 돈으로 인해 배불러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 기쁘고 만족함을 느낄 때에 이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자랑으로 표현됩니다.
한편 이 자랑을 듣는 타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있는데 아직 그가 돈을

손에 쥐지 못했을 때에 부러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부러움이 때로는 시기와 비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도 돈을 원하면서도 돈이 최고냐고 모순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과 부러움의 심리학을 진리로 풀어내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기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뒤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법궤 앞에서 항상 찬송을 부를 레위인 찬양대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긴 찬양시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시 제사 직분을 규정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모세의 장막이 있었던 기브온에서 드리기로 합니다.
다윗 통치의 궁극적 목표점은 종교와 정치의 구분이 없어지고 온 백성 각자의 마음이 법궤의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10~11절에서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는 찬양시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호’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평생에 필요한 단 한 가지 이름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250만 명이 사십년 동안 살아남았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애에 필요한 것은 스펙이나 노후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특단의 조처도 필요 없고 형통한 자식으로 길러내기 위한 특별한 양육법이나 아버지 되는 법이나 어머니 되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종에 있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뿐입니다. 그 이름 하나로 인해 이 세상만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데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지성소에 담은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추구하면 얻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게 되고 성소의 떡 상이 상징하는바 만족함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의 단계가 됩니다. 단순히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담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에 즐거워집니다. 그럴 때에 나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 내가 해답을 가지고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함께 구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해야 될 왕의 직무가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가져서 즐거워졌기 때문에 이루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이때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등대의 밝음이 상징하는 대로 삶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 나타나서 밝음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쳐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대단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체질이 되어버린 유전죄입니다. 이 체질 때문에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가치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육체가 있는 한 육체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의 이름을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질 수 있고 이름 하나 가지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면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추구할 것이고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는 자마다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즐거워지면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사건과 모든 책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 법궤를 안치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렇듯 철저하게 제물을 조각내는 이유는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들을 담으면 그로 인해서 추구함과 판단이 발생하고 내 인격 전체가 그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어서 다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패함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각을 떠서 완전히 불사르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고치거나 개선해서 쓸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고혈압처럼 유전죄의 체질로 말미암아 계속 육체로 접하게 되는 세상의 가치들이 자동적으로 담겨지기 때문에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상번제가 나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양을 모세가 정한 법대로 행하도록 다윗이 지시를 합니다. 사울 왕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의 기브온 장막에서 상번제를 드릴 때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인격성 전체가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싶은데 유전죄의 체질 때문에 육체로 접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자꾸 담게 되는 죄악을 보는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복음을 복음으로서 받아들이고 복음의 효과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면 마음의 지성소에 그 이름이 들어와야 하고 내 마음이 법궤 모양이 돼야 합니다. 돌판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하나님

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옆집에서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다고 하면 부럽고 로또에 당첨되었다면 부럽고 사업이 잘 되어서 고급 명품차로 바꾸면 그게 부러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즉 속상함으로 나타나고 팔자타령을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지 않음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음으로 유전죄의 체질에 지배당하고 세상 가치의 이름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싶어 몸부림치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있고 십자가 생활화가 가능해지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담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얻고 세상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삶이 내게서도 재현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